

미래기술축산 위한 전문 컨설팅업체 육성 필요



이 득 환
한경대 교수

현대사회에서의 기술개발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고도화 및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는 적응속도가 다른 산업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느낌이 든다. 이는 농업 분야가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.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농업으로써 특히 그동안의 축산업은 규모화 및 조직화되고 있으며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도의 경영기술과 과학적인 생산기술개발이 필요할 때이다.

우리나라의 농업 가구수는 2013년 말 기준 약 114만 호 내외이고 이들이 생산하는 농업생산액은 총 46조이며 이중 축산업 생산액은 16조로써 총 농업생산액의 약 35%에 달한다. 품목별 생산액은 돼지 5조, 한우 3.5조, 닭고기와 계란 3.3조, 우유 2조 및 오리 약 1조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다. 2014년 3월 기준 축종별 농가수 및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한우의 경우는 약 114천 호에서 2,711천 두로써 농가당 평균 약 24두를 사육하고 있다. 낙농의 경우는 약 5.9천 호에서 428천 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당 평균 73두를 사육하는 규모이다. 돼지의 경우는 약 5.4천 호에서 비육돈 규모 약 9천698천 두를 사육하고 있고 모돈 규모로는 910천 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호당 평균 모돈 169두 및 비육돈 1천800두를 사육하는 규모이다. 닭의 경우는 약 3천 호에서 연간 산란계 및 육계를 모두 포함하여 총 152백만 수를 사육하고 있어 농가당 평균 약 5만 수를 사육하고 있는 규모이다.

지리적으로 국토가 적고 토지자원의 제한적인 개발로 외국의 곡물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축산산업은 국제 곡물시장 가격에

의존도가 매우 높다. 따라서 두당 생산비가 외국
의 육류가격에 비하여 높고 이로 인하여 국제경
쟁력이 낮은 현실이다. 두당 생산비는 한우 비육
우의 경우에 약 550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젓
소의 경우 경영비가 두당 약 595만 원, 비육돈의
경우는 두당 32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.

육류의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고기 소
비량은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약 10.3kg을 소비
하여 전체인구 소비량은 연간 약 510천 톤을 소
비하고 있으며 이중 약 50%를 국산 한우고기로
제공하고 있다. 한우고기의 지육단가는 2014년
평균 kg당 약 13천 원의 가격을 유지하였으며 도
체등급별 가격 차는 kg당 평균 약 2천200원의
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두당 가격 차이는 적게는
7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차이를 보이
고 있다. 젓소 농가의 수익성은 2014년 체세포
수 등급 간의 가격 차 확대 및 유단백에 대한 가
격결정 신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유가격산
정체계 개선에 따라 초임 만삭의 젓소가격은 소
폭 상승하여 2014년도 두당 약 350만 원에 거래
하고 있으며 원유생산량의 증가로 2013년 통계
약 218만 톤을 생산하였고 국민 1인당 소비량은
연간 약 71kg을 소비하고 있다. 또한, 쿼터제 시
행으로 초과물량 생산량에 대한 정상 원유가격의
약 9% 수준에 매입하고 있는 반면에 유제품 수입
량 역시 2013년 기준 약 153만 톤을 수입하고 있
다. 돼지고기 소비량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21kg
을 소비하고 있으며 연간 총 소비량 1,162천 톤
중 약 84%를 국내 공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
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

이렇게 규모화되고 전업화를 가속화 하고 있는
국내 축산산업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축산으
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해야 국제 경쟁력에서 우

위를 점할 수 있다. 이를 위하여 제조업 회사에서
실시하고 있는 경영분석의 원리를 응용하여 농업
현장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분석이 우선
되어야 한다. 이러한 경영논리는 산업의 특수성
때문에 도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 하지만 이
윤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경영논리는 기술축
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.

객관화된 축산경영의 경영분석 및 기록에 근거하
여 개발된 기술의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. 축
산 경영에서 기술개발의 요소를 살펴보면 농장관
리, 개체관리, 사양관리, 번식관리, 육종, 판매 및
유통관리 등을 들 수 있다.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
전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축산산업의 현실
성을 고려할 때 주로 개인사업자로 매우 운영하
기 어려운 실정이다.

따라서 전문적인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할
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갖춘 업체를 통
한 종합컨설팅의 운영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.
우리나라는 현재 (사)한국축산컨설팅협회 및 농
협중앙회에서 일부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축
산농가에 전 분야를 컨설팅할 수 있는 정부지원
과 예산이 미흡한 실정이며 전문 컨설팅을 수행
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.
정부는 축산분야 경영활성화 측면에서 축산산업
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 집단의 양
성을 통한 양축농가의 기술 산업화를 꾀할 수 있
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. 해당 컨설팅 집단
은 상기에서 언급한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
을 양성하여 농업현장에 기술 컨설팅을 수행함으
로써 우리나라 축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
할 것이다.

축산신문 [2015. 09. 09]